

반도체 계약학과 강세·의대 약세… 서·연·고 수시 지원 희비

연고대 반도체 지원 5.2% 늘어
고려대 반도체공학 21.1% 급증
서·연·고 의대는 11.3% 감소
의대 경쟁률도 일제히 하락세
안정지원·지역의사제 분산 영향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연세대·고려대 반도체 계약학과 지원자는 전년보다 5.2% 늘어난 반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의대 지원자는 11.3% 줄었다. 반도체 계약학과 선호가 높아진 가운데 의대는 안정지원 경향과 지방권 지역의사제 선발 확대에 따른 분산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연세대와 고려대 반도체 계약학과 지원자는 총 1223명으로 전년 1163명보다 60명(5.2%) 증가했다.

특히 SK하이닉스와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지원자가 크게 늘었다. 올해 지원자는 408명으로 전년



10월 서울 양천구 목동종로학원에 2027학년도 반도체 계약학과 정시 합격 예측점수표가 게시돼 있다. /뉴시스

337명보다 71명(21.1%) 증가했다. 경쟁률은 14.57대 1로 2021학년도 학과 신설 이후 가장 높았다. 지원자 수도 신설 이후 최대 규모다.

반면 삼성전자와 연계한 연세대 반도체 계약학과에는 올해 815명이 지원했다. 지난해 826명보다 11명(1.3%) 감소했다. 경

쟁률은 10.87대 1로 고려대 반도체공학과(14.57대 1)보다 낮았다.

두 대학을 합친 지원자가 증가한 데는 고려대 반도체공학과와 지원자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종로학원은 연세대에서 지원자가 소폭 감소했지만 고려대에서 20% 이상 늘어난 점을 들어 반도체

계약학과에 대한 수험생 선호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의대에서는 정반대 흐름이 나타났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의대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총 368명(11.3%) 감소했다.

세 대학 모두 지원자가 줄었다. 서울대 의대 지원자는 전년보다 100명(9.5%) 감소했고 연세대는 85명(12.4%), 고려대는 183명(11.9%) 줄었다.

경쟁률 역시 세 대학 모두 하락했다. 서울대 의대는 지난해 10.92대 1에서 올해 9.88대 1로 떨어졌고, 연세대는 10.86대 1에서 9.51대 1로 낮아졌다. 고려대도 22.97대 1에서 20.24대 1로 하락했다.

이 같은 하락세는 지난해부터 나타났다. 서연고 의대 평균 경쟁률은 2021학년도 12.42대 1에서 2025학년도 18.82대 1까지 높아졌지만, 2026학년도에는 14.47대 1로 크게 떨어졌다.

종로학원은 올해 의대 지원 감소에 수험생들의 안정지원 경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2027학년도가 현행 대입제도로 치러지는 마지막 입시인 만큼, 고3 수험생들이 재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서울 주요 의대에 소신·상향지원하기보다 합격 가능성이 높은 대학으로 지원을 분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지방권 의대 지역의사제 모집 확대도 최상위권 자연계 수험생의 지원을 분산시킨 요인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최상위권 학생들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의대에 집중되기보다 지방권 의대 등으로 분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연세대와 고려대의 지원 상황을 보면 반도체 계약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의대는 안정지원 경향과 지방권 지역의사제 모집 확대 등에 따라 상위권 수험생의 지원이 분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양재대로 지하차도 연결로 정체 풀린다

대모지하차도 내일 오후 11시 임시개통
매현~염곡동서~구릉~대모~일원 연결

양재대로의 대표적인 상습 정체 구간인 구릉마을입구 교차로와 개포3·4단지 교차로 사이를 지하로 잇는 대모지하차도가 개통한다. 매현지하차도부터 일원지하차도까지 양재대로 주요 지하차도가 연결되면서 출퇴근 시간대 통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오는 12일 오후 11시부터 대모지하차도를 임시 개통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민들의 통행 편의를 위해 지하차도 구간을 먼저 개방하기로 했다.

대모지하차도는 총연장 1174m, 왕복 4차로 규모로 조성됐다. 양재대로의 상습 정체 구간을 지하로 통과해 기존 구릉지하차도와 일원지하차도를 직접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양재대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서울의 주요 동서 간선도로다. 평소 교통량이 많아 주요 교차로마다 차량 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서울시는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양재대로 주요 구간에 지하차도를 단계적으로 건설해 왔다. 일원지하차도는 1993년 12월, 구릉지하차도는 2014년 9월 개통했다. 염곡동서지하차도는 2019년 12월, 매현지하차도는 2020년 11~12월 각각 문을 열었다.

이번 대모지하차도 개통으로 매현~염곡동서~구릉~대모~일원으로 이어지는 양재대로의 주요 지하차도축이 완성된다.

임시 개통에 따라 일부 차로와 교통 동선은 변경된다. 영동대로·삼성로·선릉로에서 양재대로 양재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구릉터널사거리에서 구릉터널 방면으로 좌회전할 수 없다.

해당 차량은 직진한 뒤 구릉지하차도 우측 상부도로로 나가 구릉사 앞 교차로 육교 아래에서 유턴해 구릉터널로 진입해야 한다. 개포로 또는 인주로8길 방향으로 우회해 개포지하차도를 거쳐 구릉터널로 이동할 수도 있다.

삼성로·선릉로에서 양재대로 수서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일원지하차도 진입이 제한된다. 직진한 뒤 일원지하차도 상부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영동대로에서 양재대로 양재 방향으로 가는 차량도 대모지하차도에 진입할 수 없어 지하차도 우측 상부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임시 개통 이후에는 지하차도 상부도로 복구와 시설녹지 조성 등 남은 공사를 진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 기간 현장 안전관리와 교통 처리를 강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고양, 미래 항공 모빌리티 성장동력 모색

산·학·연·관 협력 강화 방안 논의

고양시가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산·학·연·관 협력 강화에 나섰다.

고양시는 9일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센터 비전홀에서 열린 제83회 고양경제포럼에 참석해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 전망과 지역경제와의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양경제포럼과 한국항공대학교가 공동 개최한 이번 포럼은 ‘미래 항공 모빌리티와 고양시의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진행됐다. 기업인과 대학·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급변하는 항공 모빌리티 산업의 흐름을 살펴보고 고양시가 미래산업 선점을 위해 준비해야 할 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김상우 한국항공대학교 대외협력처장은 발제를 통해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산업의 주요 흐름과 향후 전망을 소개했다. 특히 고양시가 보유한 교육·연구 인프라와 입지 여건을 활용해 관련 산업에서



민경선 고양시장.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미래 항공 모빌리티는 새로운 이동수단의 등장을 넘어 교통과 물류, 관광, 도시개발은 물론 산업 전반의 구조를 변화시킬 미래산업”이라며 “한국항공대학교를 비롯한 우수한 교육·연구 인프라와 수도권 접근성을 갖춘 고양시는 미래 항공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인하대, 타이어 유래 오염물질 ‘자가분해’ 메커니즘 규명

6PPD-Q가 과초산 직접 활성화
외부 촉매 없이 분해 가능성 확인

인하대학교 최아영 박사과정생이 타이어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스스로 분해되는 반응 원리를 밝혀냈다.

인하대는 환경공학과 한창석 교수 연구실 소속 최아영 학생이 타이어 유래 오염물질 ‘6PPD-Q’의 자가분해 메커니즘을 규명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Environmental Chemistry Letters’에 게재했다고 10일 밝혔다.

6PPD-Q는 자동차 타이어에 쓰이는 산화방지제 ‘6PPD’가 오존과 반응하며 만들어진다. 최근 수중 환경에서 검출되고 있는 신종 난분해성 오염물질로, 독성이 있다.

6PPD-Q 같은 난분해성 오염물질을 없앨 때는 과초산(PAA) 기반 고도산화 처리를 거친다. 오염물질 제거 효과가 크



한창석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



최아영
박사과정 학생

면서도 유해 부산물은 적기 때문이다. 다만 과초산의 산화력을 충분히 끌어내려야 통상 자외선이나 금속 촉매 같은 외부 활성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최 학생은 6PPD-Q 자체가 과초산을 활성화해 자기 자신을 분해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연구 결과, 과초산 농도가 높아질수록 분해 속도가 빨라졌다. 고농도일 때는 자외선 유무와 관계없이 분해됐고, 저농도에서 자외선을 쬐어줄 때는 라디칼(짝을 이루지 못한 전자를 가져 반응성

이 큰 분자)’이 추가로 생성돼 분해 효율이 더욱 높아졌다.

현상의 원인을 규명했다. 6PPD-Q가 과초산과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세미퀴논 라디칼’로 바뀌는데, 이 물질이 다시 과초산을 더 빨리 분해하고 추가적인 활성화 라디칼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결국 오염물질 스스로 산화제를 자극해 분해를 유도하는 셈이다. 최 학생은 이를 ‘오염물질 주도 산화제 활성화에 의한 자가분해’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했다.

최아영 학생은 “타이어 유래 퀴논 오염물질인 6PPD-Q가 외부 활성화 과정 없이도 과초산을 활성화해 스스로 분해를 유도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며 “이번 연구가 새로운 고도산화 기반 수처리 기술 개발과 퀴논 오염물질 관련 자연의 자정 작용을 해석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수정 기자 kcrystal@

양주, 천일홍 가을 페스타 29일 개막

꽃밭·공연·체험 한 공간서 즐겨

양주시가 가을철 대표 꽃 축제인 ‘2026 양주 천일홍 가을 페스타’를 오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4주간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천일홍에 물드는 양주의 가을’을 주제로 천일홍을 비롯한 다양한 가을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맞춰 주말과 공휴일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공연과 체험, 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꽃밭과 행사장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 별도의 행사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꽃밭을 거닐며 공연과 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메인 행사는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주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버블매직 쇼와 인기 캐릭터를 활용한 기획 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 마련됐으

며, 9월 26일부터 10월 18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버스킹 공연과 체험·마켓 부스가 운영된다. 꽃밭 곳곳에서 펼쳐지는 버스킹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마켓 등이 축제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주 천일홍 가을 페스타 마라톤도 열린다. 양주시체육회가 최하는 이번 마라톤은 오는 10월 5일(월) 오전 8시에 개최되며, 참가자들은 천일홍이 만개한 가을 풍경을 달리며 양주의 자연을 즐길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천일홍 가을 페스타는 아름다운 꽃밭 자체가 하나의 축제장이 되도록 구성했다”며 “공연과 다양한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즐기며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양주의 아름다운 가을을 만끽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양주(경기)=김용택 기자 mk4303@